

1. 自立된 100教会의 設立
2. 主님의 일꾼의 養成
3. 작은 이웃들과 함께 사는 宣敎
4. 在日同胞의 삶에 同參하는 奉仕



메시지 聖誕節

이 歴史的인 聖誕節에

總會長 楊 炯 春

感謝와 祝福



一九八八年의 聖誕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빛과 생명으로臨하신 救世主 예수 그리스도의 恩恵와 眞理가 우리 온 教会와 이 땅에 사는 우리民族 全体에게 充滿하기를 祈禱합니다.

一九八八年에 우리 在日大韓基督教会는 宣敎八十周年을 맞이하여 各教会와 地方會 그리고 總會의 元에서 盛大하고 뜻있는 祝賀行事와 記念事業을 計劃하고 實行할 수 있었읍니다. 다시말하면 우리는 이 해를 期해서 우리 教会의 믿음의 先輩들이 기록해온

이러한 해에 또한 하나님께선 具體的으로 우리 各 支會에 큰일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總會 宣敎八十周年의 歴史에서 이해처럼 教会堂建築이 同時적으로 일어나며 建設의 메아리가 各處에서 울려 퍼지는 이때까지 없었던 것입니다. 今年에 新築한 教会는 筑波·豊橋·都島·西宮·姫路·広島 教会堂이며 川崎·横浜·下関 教会堂은 増築과 大修理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일을 볼때에 저 하나님께서 우리 教会를 세우시며 引導하시며 또한 앞으로 더욱 그 義로우신 御心으로 우리를 불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할일인가

이렇게 우리는 一九八八年의 聖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感動하며 우리에게 許諾하신 모든일이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우리의 方向을 또다시 決斷하며 順從해 나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特別한 뜻속에 이 聖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聖靈을 믿게 된 우리는 聖靈의 賜을 받았습니다. 聖靈의 賜을 받았습니다. 聖靈의 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빛으로 오셔서 모든것을 審判하시는 아기의 예수님의 聖誕의 뜻을 다시한번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八八年의 聖誕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自己使命의 宣布(누가복음 4:18-19)를 明心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신 아기가 우리에게 賜하신 일이며 우리는 이일을 통해 크신 선물을 주게 되었습니다. 나를 보내사 모든 곳에 자유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모든 곳에 자유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八八年의 聖誕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自己使命의 宣布(누가복음 4:18-19)를 明心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신 아기가 우리에게 賜하신 일이며 우리는 이일을 통해 크신 선물을 주게 되었습니다. 나를 보내사 모든 곳에 자유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모든 곳에 자유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八八年의 聖誕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自己使命의 宣布(누가복음 4:18-19)를 明心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신 아기가 우리에게 賜하신 일이며 우리는 이일을 통해 크신 선물을 주게 되었습니다. 나를 보내사 모든 곳에 자유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모든 곳에 자유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八八年의 聖誕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自己使命의 宣布(누가복음 4:18-19)를 明心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신 아기가 우리에게 賜하신 일이며 우리는 이일을 통해 크신 선물을 주게 되었습니다. 나를 보내사 모든 곳에 자유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모든 곳에 자유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八八年의 聖誕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自己使命의 宣布(누가복음 4:18-19)를 明心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신 아기가 우리에게 賜하신 일이며 우리는 이일을 통해 크신 선물을 주게 되었습니다. 나를 보내사 모든 곳에 자유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모든 곳에 자유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八八年의 聖誕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自己使命의 宣布(누가복음 4:18-19)를 明心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신 아기가 우리에게 賜하신 일이며 우리는 이일을 통해 크신 선물을 주게 되었습니다. 나를 보내사 모든 곳에 자유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모든 곳에 자유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八八年의 聖誕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自己使命의 宣布(누가복음 4:18-19)를 明心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신 아기가 우리에게 賜하신 일이며 우리는 이일을 통해 크신 선물을 주게 되었습니다. 나를 보내사 모든 곳에 자유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모든 곳에 자유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祝 聖 誕

在日大韓基督教会總會

總會長	楊 炯 春
副會長	金 永 榮
副會長	李 欽 植
書記	金 君 安
副書記	金 弘 治
宣道局長	金 元 義
教育局長	黃 榮 一
社會局長	姜 德 成
婦女局長	金 海 春
青年局長	李 中 春
財政局長	朱 燾 春
人事局長	楊 宗 銀
試取委員長	尹 仁 夏
憲法委員長	李 信 煥
神學委員長	金 宗 煥
指紋拒否實行委員長	金 榮 植
南北宣敎研究委員長	金 桂 吳
會計監查	李 建 豪
會計監查	金 鍾 吉
會計監查	金 鴻 植
會計監查	李 大 京
總會總務	李 京 植

宣
教
八
十
周
年
記
念

大会をかえりみて

80周年記念式典の反省

(2)行事の意味したもの
70・80周年にかけての総括
が不明瞭であり、従って90周
年に向けてのアクションをあ
はるる無理しなかつた
一世の高齢者に対して長時間
拘束しておきながら帰路の弁
当の配慮がでなかつたかな

在日大韓基督教関西地方
聖歌隊連合会 委員会一同

(ピリピ人への手紙 2 : 6 ~ 7)

柳 尚 熙 長老(東京信濃町教会)



神様が、「私たちの国籍
天にあり」とおっしゃった
うに、ここに、日本の方々
韓国の人々がこのように一
所に集って、神の愛の中で
じ会堂において共に讃美歌
歌い、共に礼拝を捧げるこ
は、ほんとうに素晴らしい
であります。又、神様もお
びになられることでもあり
しょう。

私共、韓国信濃町教会が
年ほど前から、午後礼拝を
ける会堂として、信濃町教

はれるであらう。これは一神
われらと共にいます」という
意味である、ということを含
宵、私たちは深く信仰と結び
つけなければならぬと思ひ
ます（マタイ11・23）。

私たちが生きていることは、
神様の恩恵の中での旅ではな
い。

收心日記。

◆ ◆ ◆

※ 編著者注

① 原稿に「一九八六年 東
東信濃町教会外 日本基督教
団信濃町教会 合同聖誕節礼
拝時」柳尚熙長老が「한說



ンダーがまた終了します。私たち教会のカレンダーは三六五日のうち52日です。この52日を私たちはほんとうに感謝して来たのか。今日のクリスマスイブは一年を区切るけじめの日であると思います。今日の肉体の限りある日を明日の聖霊の無限の日に生まれ変わります。

僕自身とされ新しく生まれた生命がこの世に生まれ、神と私との接点で出合わせて下さった尊きイエス様が、私たちの心の中に今年も降誕されるよう準備をし、お願いを致しますよう。

◆ ◆ ◆

※編者注

①原稿三一九八六年 東
東信濃町教会と日本基督教
団信濃町教会 合同聖誕節礼
拝時 柳高熙長老가 한 說
教입니다。

祝
聖
誕

関東地方会

會長 尹宗銀

副会長 金君植

晶 全 長 金 太 然

元 正 天 宗 聖 訓

會計金庫

副
会
計
金
鴻
植

伝道部長 金君植

教育部長 高 完 喆

社会部長 姜 榮

婦女部長 慶恵 重

言全部長 眞 二 然 元

会十監査	李	永	次
------	---	---	---

中
邦
也
方
会

部地方委员会

副會長 黃義生

副會計 李 建 豪

書
記
朴
憲
燮

副書記 金 光 洙

會計師事務所

伝道部長 李聖雨

教育部長 黃義生

社会部長 金 光 洙

婦女音長 盧 政 一

會計監查
李富豪

會計監查 金永軒

永富應政光義聖鍾又光憲建義桂方
軒豪周一洙生雨善春洙變豪生昊会

南北両二度目の対話

スイス・グリオン宣言文採択



南と北の教会代表がスイスに集まって開かれた韓半島の平和と統一のための協議会

宣言文

南北両教会代表(韓国九名、北朝鮮七名)が、十一月二十三日から二十五日、スイス・グリオンに集まり、韓半島の平和と統一のための協議会が世界教会協議会の主催で開催された。以下は、参加代表によって採択されたグリオン宣言である(訳J.N.C.C.)。

一、序論

私たちは一九八八年十一月二十三日から二十五日まで、スイスのグリオンに集い、韓半島の緊張緩和と平和を構築し、韓民族の統一を平和的に成し遂げる課題に対する世界教会の役割に一致して協議した。

我々教会協議会の「民族の統一と平和に対する韓国キリスト教会宣言」と、同年四月、韓国仁川における「韓半島平和統一のためのキリスト教世界大会」のメッセージ等によって示された精神と合意事項を支持する。

二、信仰的決断

私たちは、神が歴史の主であり、あらゆる状況において歴史を創造され、また人間の全ての歴史を裁かれることを信ずる。平和の主として示されたイエス・キリストは力によって平和を売り渡そうとする人間の傲慢と欲を拒否された。助け主である聖霊の働きは、反目と憎悪によって隔てられた人間と人間の中垣を取り払い、私たちはその血によってあがなわれた聖なる共同体に招かれて信ずる。

三、建議

韓民族の平和と統一が成し遂げられるために、私たちは次のような諸原則を再確認し、いくつかの実践的課題のために共同で努力することに合意した。

一、韓半島の平和と統一のために南北の教会は、一九九五年を「統一のヨベルの年」として宣言し、毎年八月十五日直前の主日を共同祈禱日として守る。また、この日のために共同祈禱文を採択する。さらに、世界の全ての会員教会がこの主日を守っていくことを奨励するよう世界教会協議会に要請する。

二、私たちは一九七二年、南北の両政府が合意した「祖国統一三大原則」である、「自主平和・民族の大団結」の原則を再確認し、韓民族の統一が保障される平和共存の原則から、統一国家を建設することによって展開されねばならないことを確認する。

三、私たちは韓半島の統一の主体は南北の民衆当事者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従って今日の分断状況に因り、将来の統一課程を妨害したりする全ての外国勢力は排除されねばならない。また、統一には南北韓民族構成員全体の民族的参加によって成し遂げられねばならないという基本原則を確認する。

四、韓半島を含む東北アジアの平和を構築するためには、韓半島の統一が成し遂げられねばならない。それゆえ現在の分断を正当化したり、既成事実化しようとするいかなる形勢の偽装平和も排拒されねばならない。また、分断の固定化を指向するいかなる政治的対策や提案も排除されねばならない。

五、私たちは韓民族の平和と統一のために、両側に盛れた民族当事者間の信頼性が構築されねばならないと信じている。従って、積り積りしてきた敵対感と憎悪を克服し、赦しと和解の雰囲気形成することとができるよう南北韓教会が格別の努力をすることを勧告する。さらに世界教会も、国際連合をはじめとする国際諸機構の協力を求めた多様な努力をしていくように要請する。

六、韓半島の平和と統一を脅かす南北間の軍事的対決を止揚し、緊張を緩和させるために膨大な兵力と武器と軍事施設が大幅に削減されねばならない。このためには、現在の停戦協定が平和協定に変え

青年会関東連が待降節礼拝行う

去る12月4日(主日)午後6時より、関東地方青年連合会の待降節礼拝が川崎教会に於いて行われた。新任の朴大偉会長として初めての行事となった。第一部の礼拝は前会長の張万有兄が三年間に築いてきたベイエント形式を踏襲して厳かに行われた。尹牧師奏楽の中、金仁美姉のキヤンドルサービスによる燭火で、参加青年達が聖誕の簡書を順々に拝読しては聖誕讃美歌を合唱していった。メッセージは、世界人権宣言40周年

青年会全国協議会

代表委員	金昭裕
総務	梁讓一
書記	李承和
副書記	李武信
研究	姜聖律
伝道	尹日鉉
伝道	康孟寅
出版	金秀生
財政	崔日承
財政	朴大偉
財政	黃世和
財政	鄭光男
財政	金咲恵子

祝聖誕

西南地方會	會長	崔昌華
副會長	李聖柱	
副會長	安海春	
書記	李聖宰	
副書記	宋基秀	
財政部長	裴正剛	
財政部長	崔聖柱	
財政部長	李根秀	
財政部長	李雄圭	
會計監查	具滋東	

婦人会全国連合会

會長	朴善喜
副會長	金貞女
書記	李相玉
副書記	崔仙和
會計	吳玉同
宣教師局長	崔英子
教育局長	吳京順
教育局長	姜順明
青年局長	姜坤
財政局長	盧英
後援局長	崔善
規則局長	朴蓮
會計監查	鄭鍾
總務	徐貞順